

◆ 영국 ECGD, 베트남 폐지 재활용 설비에 600만 파운드 지원

영국 수출신용보증국(ECGD)은 對베트남 폐지 재활용 설비 수출 관련 600만 파운드의 보험을 인수키로 하였다. 동 사업은 베트남의 Tan Mai 제지공장내에 폐지로부터 잉크를 제거하는 설비를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,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재활용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 잉크제거 설비는 영국의 AF-QPS社가 제작·설치하는데, 신문·잡지 등 폐지를 활용하여 매일 70톤 정도의 새로운 종이를 생산하게 된다.

ECGD의 보험 인수로 성사된 동 프로젝트는 설비수출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도 포함하고 있다. AF-QPS社는 잉크제거 작업에 초기에는 영국의 숙련 기술자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베트남 현지인을 훈련시켜 활용할 예정이다. 따라서 이번 사업으로 전력소비를 줄이고 폐지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.

【黃秀泳】